

지난해 '쌀 직불금' 받은 관외 경작자 광주·전남 1만3,635명

을 신청자 2,232명 늘어...20~30% 부정 수령 추정

지난해 자신의 소유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광주·전남지역 관외경작자는 모두 1만3천6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관외경작자는 1만5천867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232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2·4면〉

1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에게 제출한 '2007~2008 관외경작자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전국 관외경작자는 10만6천694명

(6만966ha)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지난해 광주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8천188명(3천595ha)이며 전남지역 직불금 수령 관외경작자는 5천447명(3천642ha)로 집계됐다.

또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전국 관외경작자는 전년 대비 2만1천여명이 늘어난 12만8천217명(6만9천98ha)로 나타났으며 광주지역 직불금 신청 관외경작자는 9천595명(4천25ha), 전남지역 직불금 신청 관외경작자는 6천272명(4천496ha)로 조사됐다.

관외경작자의 경우, 상당수가 현지 거주 친척이나 농민 등에 임대를 주

고 있어 적어도 20~30% 정도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담양·영광군 등에서 주거지나 공장용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를 경작중인 농지로 속여 직불금을 수령한 30필지(193만원)가 적발됐다.

또 정부가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하고 공직자에 대해 엄정 처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떠나 무더기 처벌 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부에서 엄격한 조치를 취해 성년 농심(農心)을 달래는 절차를 취하고 난 뒤 국조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지난달 말 열람한 감사원의 '2006년 쌀 직불금 감사결과'에는 비경작자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421명이었으나, 지난 14일 감사원 발표에서는 3만9천971명으로 450명이 줄었다"며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러시아 기술진이 지난 16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KSLV-1의 1단부와 상단부 결합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봄 나로 우주센터서 발사 한국 로켓 1호 KSLV-1 첫 선

〈지상 시험용〉

실제 발사체는 내년 1월 반입

내년 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인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KSLV-1)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에서 KSLV-1의 상단부(2단 고체로켓 및 위성탑재부)와 하단부(1단 액체로켓) 결합 작업을 개시하면서 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KSLV-1은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상단부와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하단부로 나뉘며 전체 길이 33m, 지름 2.9m, 총중량은 140t에 이른다.

100kg급 인공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힘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하단부는 1단 액체엔진과 노즐,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길이는 25.8m다. 이 로켓

은 액체연료 130t을 사용해 170t의 추진력으로 우주를 향해 치솟게 된다.

또 과학기술위성 2호가 실리는 부분인 상단부는 2단 고체로켓과 위성탑재 공간, 탑 재체를 보호하는 노즈페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길이는 7.7m다.

이날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조립동(Assembly Complex)에서 공개된 KSLV-1은 지상시험을 위한 지상시험용 기체(Ground Test Vehicle)

지만 크기와 무게, 각종 전자 장비 등 모든 것이 내년 2분기에 발사될 실제 발사모델과 똑같이 제작된 것이다. 러시아에서 제작된 1단 로켓은 지난 7월 말 항공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 초대형 무인자동차와 화물운반선을 이용해 부산항을 거쳐 8월 초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졌다.

실제로 발사될 기체의 1단 로켓은 연말께 나로우주센터 발사대가 완공되고 지상시험용 기체를 이용한 모든 시험이 완료되면 내년 1월께 러시아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은행 외화차입 1천억弗 3년 지급 보증

정부, 금융 대책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어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제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관련기사 3·11면〉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러 해외지점을 포함

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천억 달러로 설정했다.

한도를 1천억 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인 점이 감안

됐다. 강만수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하는데 그중 150억 달러는 경매를 통해, 나머지 50억 달러는 무역금융을 지원 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100억 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제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성태 총재는 "원화 유동성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금융이 잘 돌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은펜상' 서미정·최영태씨

2008년 2, 3분기

'광주일보 은펜상' 2008년 2, 3분기 수상자로 서미정(42) (사)사랑모아가족복지회 회장과 최영태(54·전남대 교수) 광주흥사단 회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서 회장은 지난 4월 22일자 '장애인의 날'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

다'는 NGO칼럼을 통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8월 26일자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문제와 문화전당 조성'이라는 NGO칼럼에서 문화전당 조성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한 옛 도청 별관 보존 문제에 대해



〈서미정씨〉 〈최영태씨〉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축 만년필을 드립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전라남도에서 찾으십시오

농·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서비스·정보
농·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서비스·정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